

송강호, 로카르노 '엑셀런스 어워드' 수상

배우 송강호가 지난 12일 스위스 로카르노의 팔렉스포 홀에서 열린 제7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엑셀런스 어워드' (Excellence Award)를 받았다.

엑셀런스 어워드는 2004년부터 독창적이고 뛰어난 재능으로 영화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한 배우에게 헌정하는 상으로 수잔 서랜던, 존 말코비치, 이자벨 위페르, 쥘리에트 비노슈, 에드워드 노턴, 이선 호크 등이 받았지만, 아시아 배우로는 송강호가 첫 수상자다.



억되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시상식에는 함께 영화제에 초청받은 봉준호 감독도 참석했다.

송강호는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해준 나의 영원한 동지이자 친구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예술가 봉준호 감독님에게 이 트로피의 영광을 바친다." 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송강호는 수상소감을 통해 "전통과 유서가 깊은 아름다운 로카르노에서 의미 있고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 며 "특히 이 자리는 그동안 존경하는 세계 최고 배우들의 자취가 남겨져 있는 자리라 더욱 감격스럽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특별한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때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수많은 예술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감동의 시간으로 기

방탄소년단, '틴 초이스 어워즈' 4관왕



방탄소년단(사진)이 폭스방송이 주관하는 '틴 초이스 어워즈 2019' (Teen Choice Awards 2019)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

12일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전날 로스앤젤레스 허모사 비치에서 열린 '틴 초이스 어워즈' 에서 '초이스 클래식레이션', '초이스 서머 투어',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초이스 팬덤' 부문 등 4관왕을 차지했다. 이는 올해 시상식 후보에 오른 뮤지션 가운데 최다 수상이다.

이 밖에도 4개 부문 후보에 오른 걸그룹 블랙핑크가 '뚜두뚜두' 로 '초이스 송:그룹' 상을 받았다.

그룹 몬스타엑스는 K팝 가수로는 처음 이 시상식에서 공연을 펼쳤다. 이들은 첫 영어 싱글 '후두 유 러브?' (WHO DO U LOVE?)를 선보이며 스페셜 무대를 꾸몄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틴 초이스 어워즈' 는 13-19세 틴에이저들이 음악, 영화, 방송,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아티스트, 배우, 스포츠 스타들을 직접 뽑는 시상식이다.

강남, 한국 귀화 준비중 ... "결혼 준비 아니야"

일본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강남(본명 나메카와 야스오·32·사진)이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이다.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2일 "강남이 최근 한국으로 귀화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 귀화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통과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다.

강남은 지난해 말 귀화를 결심하고 여러 차례 가족 등과 상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강남이 귀화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면서 "개인적인 사유라 특정해서 전달하기 힘들다." 고 말을 아꼈다.



이상화와 공개 열애 중이다. 이에 따라 결혼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는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혼 때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라며 "실제로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도 아니다." 라고 답했다.

강남은 1987년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2011년 그룹 엠아이비(M.I.B)로 데뷔하며 한국 활동을 시작했으며 '정글의 법칙', '나 혼자 산다' 등의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는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강남은 지난 3월부터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

1277호 낱말퍼즐 정답

| | | | | | | | | | | | | |
|----|---|---|----|----|---|----|---|----|----|---|----|---|
| | 1 | 망 | 아 | 2 | 지 | | 3 | 소 | 각 | 4 | 장 | |
| 5 | 백 | 발 | | 6 | 방 | 7 | 한 | 복 | | | 점 | |
| | | | | | | | 달 | | | | | |
| 8 | 종 | 착 | 9 | 지 | | 10 | 음 | 11 | 주 | | 12 | 알 |
| | | | | 13 | 면 | 14 | 복 | | 15 | 변 | 두 | 리 |
| | | | | | | 걸 | | | | | | 바 |
| 16 | 고 | | 17 | 바 | 이 | 18 | 어 | | 19 | 사 | 이 | |
| 20 | 막 | 바 | 지 | | | 21 | 귀 | 동 | 냥 | | | |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운(運)의 흐름이 바뀌는 두 아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중년부인과 두 아들에 대해서 상담한 내용이다. 큰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면서 결혼해서 자식도 두고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작은 아들인 것이다. 작은 아들은 학창시절에도 툭하면 싸움을 하고 사고를 치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래도 대학에 다니기는 했는데 그나마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한 상태라는 것이다. 필자가 두 아들의 사주(四柱)와 운(運)의 흐름을 살펴보니 큰 아들은 지금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운로를 지나고 있지만 40대 후반을 넘어서게 되면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재물은 물론 배우자의 덕(德)도 원만하지

못한 운의 흐름이 시작되는 것이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40대 중반 이후에 재물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운로(運路)가 시작되어 훗날 크게 부자(富者)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아들의 인생 운로를 보면서 필자가 부인에게 건넨 이야기는 "지금은 큰 아들의 운(運)의 흐름이 사회적인 활동에는 좋은 운(運)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운(運)의 흐름이 되지만 40대 중반 이후에 크게 부자(富者)로 성공하게 되면서 훗날에는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부인이 놀라면서 묻는 말이 "아니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나중에 큰 부자(富者)가 됩니까 ?"라고 되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작은 아들은 40대 중반부터 운(運)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둘째 아드님이 성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초조해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나중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 | | | | | | |
|-----------|------------|----------|-------|--------------|---|-------------|-----------|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 예약 필수 | 714.534.4645 |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 ☯ 청해역학학술원 |
| 상호, 이름 작명 | 풍수지리 출장 감정 | 수맥 탐사 전문 | | | | | |